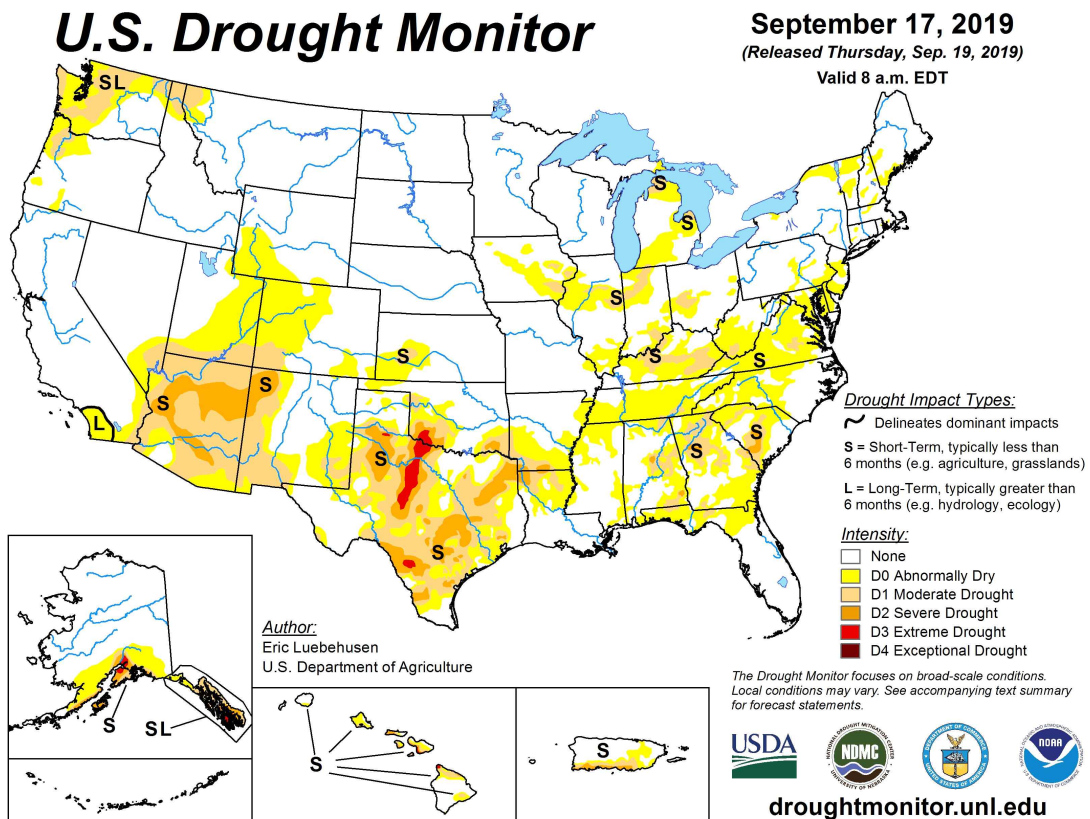


9월 2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78)

□ 미국 기후 현황(9/15~9/21)

열대성 태풍 이델다는 비교적 작은 지리적 지역, 주로 텍사스 남동부에 걸쳐서 비 (1-3 피트 이상)를 몰고 와서 홍수를 일으켰다. 이델다가 몰고온 비의 대부분은, 9월 17일 텍사스 주 프리포트 근처에서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내렸다. 한편, 이전에 건조했던 평원 남부 지역을 포함하여 미국 내 중부 구역의 여러 곳에 걸쳐서 상당한 양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먼 북쪽은 유익한 비가 내려서 중부의 옥수수 벨트에서 늦게 발달하고 있던 여름작물들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비에 젖은 북부 평원은 추가로 내린 소나기로 인해 괴로움을 겪었다. 북부 평원은 기록적인 9월 강우로 소곡류 수확 작업이 지장을 받아 아직도 밭에 있는 작물들의 품질을 위협했다. 비가 북서부, 특히 캐스캐이드 서부에도 내렸지만, 미국의 나머지 지역 대부분은 건조한 날씨로 덮였다. 오하이오 계곡과 남동부 내륙에서는 단기 건조와 기록적인 고온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초가을 야외 작업에는 유리했지만 초지에는 스트레스를 주었고 표토 수분을 고갈시키는 면이 있었다. 사실상 평년보다 뜨거운 날씨가 로키산맥과 애팔라치안 산맥 사이에서 우세하였고 평원의 북부와 중부에서부터 중서부와 중남부 일부에까지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10° F 이상 높았다. 대서양 연안 주들에는 날씨가 다소 시원했다. 그밖에 먼 서쪽은 평년보다 시원한 날씨가 우세했는데 그레이트베이슨과 태평양 연안 주들의 일부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 F 이상 낮았다.



### □ 농업 현황 요약(9/16~9/22)

나라의 대부분이 건조했다. 하지만 옥수수 벨트, 루이지애나, 텍사스, 오클라호마, 태평양 북서부 일부는 3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오대호, 대평원, 미시시피 계곡 일부는 기온이 평년보다 6° F 이상 높았다. 반면,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이다호, 유타, 뉴잉글랜드, 태평양 북서부 일부는 평년보다 3° F 이상 높았다.

### □ 세계 기후 현황(9/15~9/21)

■ 유럽: 유럽 북서부와 남서부 일부에는 가뭄이 심해지고 있는데 반하여 그 밖의 지역에는 유익한 비가 내렸다. 프랑스 중부에서부터 독일 북서부까지는 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작물 재배 지역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다. 이 지역은 지난 90일간 강우 부족으로 (지역적으로 평년의 25% 이하) 인하여 흙은 밀과 유채를 심고 활착시킬 수 있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다. 장기 강수량 신호는 훨씬 긍정적이지만 (60일 강우량이 평년의 100% 초과), 영국 남동부에서도 단기 건조 (30일 강우량이 평년의 50% 미만)가 일어났다. 특히 북프랑스의 가장 건조한 현장들에서 겨울밀과 유채가 적절히 활착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이와 비슷하게 발칸 반도에서 늦철 더위 (30-32° C)로 악화된 격심한 단기 건조가 겨울 작물의 파종과 활착에 필요한 토양 수분 손실을 가속화시켰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 남부는 30일 및 60일 총 강우량이 각각 평년의 10%와 50% 미만에 불과했다. 반대로 스페인 중부와 북부 전체에 내린 중간-강한 비 (10-60 mm)가 마지막 남은 가뭄의 잔재를 제거해버렸으며 겨울밀과 보리의 파종 전망을 더욱 밝혀주었다. 이와 비슷하게 유럽 북동부 전체에 소나기 (5-65 mm)가 널리 내려서 독일 북동부의 단기 가뭄을 누그러뜨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겨울 작물들을 위해 좋은 조건을 유지해주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 일부에서 가뭄이 강화되었지만 러시아 남서부에서는 소나기가 내려서 가뭄 우려가 가라앉았다. 비가 우크라이나의 많은 곳을 계속 우회하여 (대체로 5 mm 이하) 우크라이나의 북중부와 서중부 전체에서 90일 평균 강수량이 평년의 50% 미만이었다. 남우크라이나에 있는 주요 겨울밀 지역은 상황이 좋았지만 (60일 강우량이 지역적으로 평년의 100% 이상), 이들 핵심 겨울 작물 지역으로 단기 건조가 퍼지기도 했다. 반면에 러시아의 남부 구역은, 겨울밀이 잘 활착하기 위해서는 비가 더 일정하게 내릴 필요가 있는 하지만, 중간-강한 소나기 (5-50 mm)가 단기 건조를 완화시켰다.

■ 동아시아: 동중국은 전체적으로 날씨는 건조하고 계절적으로 따뜻하여 여름작물 성숙에 유익하였다. 특히 흑룡강성과 길림성은 그런 건조함을 환영했다. 이곳은 계절 내내 계속 비가 내려서 총강수량이 기록적이었다. 토양 수분이 풍부하고 시기적절하게 늦철 건조가 찾아와서 옥수수, 콩, 벼는 높은 수확량을 올릴 것 같다. 하지만 남동부는 현재의 건조가 더욱 좋지 못했다. 지난 계절 하반기 동안 가뭄이 심하여 늦작물 벼에게 필요한 수분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강우 대부분 (10-50 mm 또는 그 이상)이 중국 중앙 (사천성과 주변)에 집중되었는데 여름작물에게는 너무 늦었지만 10월과 11월에 심는 겨울 작물을 위한 수분 공급량을 올려주는 비였다. 태풍 타라는 주말 남북한으로 향하고 있었고, 태풍 끝자락에서 생긴 소나기 (25-50 mm 또는 그 이상)가 남한에 내려서 심각한 계절 가뭄을 완화시켜줄 만큼 아주 필요했던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 호주: 서호주에서는 밀 벨트의 북부와 중부가 전체적으로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성숙 중인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들을 위한 수분 공급량을 더욱 감소시키고 있었다.



밀 벨트의 남쪽 부분에서는 소나기가 광범위하게 내려서 (5-25 mm) 겨울 작물들에 대한 수확량 전망을 대체로 좋게 유지하였다. 먼 동쪽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적시는 비 (15-50 mm) 가 남호주에 널리 내려서 생식 중인 밀, 보리, 캐놀라의 수확량 전망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반면에, 빅토리아 전역에는 비가 덜 내렸는데 (5-15 mm), 특히 호주의 북부 지역은 작물의 전망을 유지하려면 비가 더 와야할 것이다. 뉴사우스웨일즈의 중부와 남부에서는 밀 벨트 동부 일부에 내린 소나기 (5-1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가뭄을 다소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겨울 작물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그 비는 너무 늦었다. 퀸즐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의 북부에서는 건조가 지속되어 가뭄에 스트레스를 받은 밀의 성숙을 앞당겨서 많은 지역에서 조기 수확을 촉진시켰다. 여름작물 파종이 조금 시작되기는 했지만 건조가 지속되어서 대폭적인 파종 활동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호주와 동호주에서는 평균 온도가 평년보다 1-3° C 높아서 남호주의 주간 최고 온도는 일시적으로 30° C 에 육박했다. 주초에는 남호주 동부와 빅토리아 서부에서 최저 온도가 영하 근처로 떨어져서 일부 지역은 서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서호주에서는 평균 온도가 평년 근처였다.

■ 아르헨티나: 대체로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겨울 곡물의 빠른 성장을 촉진했다. 다만 서쪽 농업 지역은 아직도 수분이 필요한 상태였다. 몇몇 고립된 장소들에 10 mm 이상이 기록되기는 했지만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았다. 게다가 주간 평균 온도가 평년보다 최대 2° C 높아서 작물과 토양에 미치는 건조의 영향을 악화시켰다. 낮 최고 온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는 섭씨 20도 대 하위-중간 수준이었고, 포르모사에서는 40° C까지 올라가서 지난 주 많은 곳에서 유익한 강우를 기록했던 북부 생산 지역에서는 해바라기의 빠른 출현을 촉진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9월 19일 현재 해바라기 파종이 36%였는데, 이는 작년 추세 (37%)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썬씨드 생산 지역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아직 파종이 시작되지 않았다. 주간 보고서도 영양생장 중인 겨울 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분 스트레스 징후에 주목했다.

■ 브라질: 남동부 일부에서 소나기가 여름작물들을 위한 수분을 증가시켰지만 브라질 중부의 농업 지역들에서는 보다 건조한 조건들이 계속 우세하였다. 파라나와 상파울로 남부에서부터 남쪽으로 우루과이까지 총강수량은 10-50 mm 였고 지역적으로는 더 높았다. 비를 동반한 따뜻한 날씨로 파라나 북부와 서부는 낮 최고 온도가 섭씨 30도 대 상위까지 치솟았고 남부 전체는 기온을 영상으로 유지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019/20년 첫 번째 옥수수가 9월 16일 현재 24% 파종되었고 콩 파종은 일부 지점에서 시작되었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그 밖으로, 밀은 44% 수확되었다. 정부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리오그란테 도 술에서는 9월 19일 현재 밀의 80%가 개화기-종실비대기를 지나고 있었다. 비가 내린 남부와 대조적으로 중부와 북동부 내륙에 있는 농업 지역의 많은 곳들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였다. 이곳은 대부분의 농민들이 콩을 심기 위해 계절 강우가 개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외적으로 마토그로소 북부의 외딴 생산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나기 (지역적으로 10 mm 이상)가 기록되었다. 마토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콩 파종이 시작되었지만 파종 의향량의 1% 미만이 파종되었을 뿐이었다.

